Daishin 증권

운송업 Weekly

2025.10.20(월) – 2025.10.24(금)

Analyst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 지난주 당사 유니버스 운송업의 수익률은 전주대비 –3.1%를 기록, KOSPI 주간 수익률 5.1%를 하회, KOSDAQ 주간 수익률 2.7%를 하회
- 지난 한 주간 운송 업종에 대한 수급은 기관 –56.7억원 순매도, 외국인 –2.5억원 순매도, 연기금 –49.7억원 순매도
- 당사 커버리지 중 주간 수익률 상위 기업은 팬오션 3.8%, CJ대한통운 2.0%, 현대글로비스 1.9%의 순서
- 추석 연휴 이후 BDI 반등과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팬오션의 주가가 반등에 나선 것으로 추정
- 현대글로비스는 한미간의 관세 협상 체결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협상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재차 하락세를 시현
- 대한항공은 2025년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3,763억원으로 시장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하였지만, 기관 및 외국인 매출 출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전주대비 보합권에서 마감
- HMM은 ① 10월 22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완료로 총 유통주식수가 943.2백만주로 감소하며 시가총액이 축소된 효과와 ② SCFI의 반등으로 인해 22일 주가가 반등했지만, 목~금 이틀간에 걸쳐 상승폭을 반납하고 마감
-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인천공항 DATA가 뒤늦게 발표되었는데, 국제선운항은 –0.5%(yoy), 국제선여객수송은 +0.4%(yoy), 항공화물수송은 +3.6%(yoy)로 나타남. 국제여객 수요의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된 모습
- 항공사별로(증감은 yoy) 대한항공의 운항은 +2.1%, 국제여객수송은 +6.6%, 항공화물수송은 +1.3%이며,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은 –9.8%, 여객수송은 –0.9%, 항공화물수송은 –80.2%로 집계
- 주요 지역별로 [일본]은 운항 +1.7%, 여객 +2%, 화물 +13.6%, [중국] 운항 +5.7%, 여객 +17.4%, 항공화물 +8.2%, [동남아] 운항 –11.1%, 국제여객 –8.8%, 항공화물 +10.1%, [미주] 운항 +8.4%, 여객 +0.2%, 화물 –2.7%, [유럽] 운항 +4.8%, 여객 +8.1%, 항공화물 –2.9%를 기록
- BDI는 10월 24일 기준 2,092pt로 전주대비 1.1% 상승, SCFI는 10월 24일 기준 1,403pt로 전주대비 +7.1% 상승
- 주요 운송업체 실적 발표일: 현대글로비스(10/30, 오전 11시, 컨콜), 팬오션(11/3, 오후 3시, 컨콜), CJ대한통운(11/7일 오전 10시, 컨콜), HMM(11/14일 경, 컨콜로 예상)

커버리지 기업 주가 수익률 & 수급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수익률 (%)						주간 매매동향 (십억원)		
			1 W	1 M	3M	6M	12M	YTD	기관	외국인	연기금
대한항공	22,400	8,248	1.1	–2.8	–8.9	8.0	–4.5	–0.9	–32.1	11.6	–26.6
제주항공	5,900	476	–0.7	–8.2	–15.1	–12.5	–33.1	–21.3	–0.5	0.3	–0.5
진에어	7,330	383	–3.6	–10.1	–19.9	–16.0	–30.3	–23.8	–0.8	–0.2	–0.8
티웨이항공	1,821	496	0.0	–1.1	–5.9	–14.9	–41.0	–24.1	0.0	0.0	0.0
CJ 대한통운	82,600	1,884	2.0	0.2	–8.0	–0.7	–8.7	–2.1	–0.8	0.7	–1.1
한진	19,550	298	–0.6	–2.7	–5.1	4.7	1.8	2.8	–0.2	–0.7	–0.1
현대글로비스	167,900	12,593	1.9	–2.0	18.1	48.9	37.5	42.2	–5.5	–3.1	–4.4
대한해운	1,798	580	7.7	3.9	–2.4	16.5	0.8	7.4	–0.1	7.6	–0.1
팬오션	3,830	2,047	3.8	–3.0	–10.5	16.2	9.7	16.1	7.2	–8.3	1.8
HMM	20,550	19,384	–1.2	–3.5	–16.5	8.5	20.5	16.4	–23.9	–10.5	–17.9
운송업		**46,388**	**–3.1**	**–2.6**	**–8.0**	**21.2**	**24.5**	**43.6**	**–56.7**	**–2.5**	**–49.7**
KOSPI	3,942	3,152,827	5.1	13.5	23.5	56.3	52.7	85.3	2,625.9	–797.0	56.8
KOSDAQ	883	465,312	2.7	2.6	9.0	20.2	20.2	49.2	64.4	–123.4	–69.0
NIKKEI	49,300	–	3.6	8.0	17.9	40.7	29.2	47.3	–	–	–
SHANGHAI	3,950	–	2.9	2.5	9.6	19.8	20.4	33.4	–	–	–
FTSE	9,579	–	2.4	3.5	4.8	13.9	15.8	24.1	–	–	–
Dow Jones	46,735	–	1.2	1.3	4.6	16.6	10.3	23.9	–	–	–
S&P 500	6,738	–	1.1	1.5	5.9	22.9	16.0	42.1	–	–	–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

(단위: %)

기업명	3Q25 Sales Consensus Change			3Q25 OP Consensus Change		
	1W	1M	3M	1W	1M	3M
대한항공	0.0	–4.2	–6.2	0.0	–22.3	–27.2
제주항공	0.0	–3.6	–4.2	0.0	–36.5	–51.0
진에어	0.0	–4.6	–7.5	0.0	–20.5	–47.3
티웨이항공	0.0	–	–	–	–	–
CJ 대한통운	0.0	–0.5	–3.1	0.1	3.1	–3.9
한진	0.0	–	–	0.0	–	–
현대글로비스	0.1	–0.2	0.7	–0.1	0.1	5.5
대한해운	0.0	1.5	–1.6	0.0	–3.4	–11.3
팬오션	0.0	–0.1	–1.6	–0.2	–0.5	–1.0
HMM	0.7	1.7	–5.3	3.9	2.5	–49.2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운송업 주요 지표

(단위: 원, $, pt, %)

	종가	수익률	
		1W	1M
원/달러	1,429.8	0.6	2.7
WTI	62.6	8.8	–4.4
DUBAI	65.1	7.1	–4.3
Jet Fuel	89.5	7.7	1.1
BDI	2,057.0	–0.6	–8.2
BCI	3,059	–2.0	–14.4
BPI	1,924	5.3	5.5
BSI	1,378	–3.2	–7.1
CCFI	993	2.0	–11.4
SCFI	1,403	7.1	17.1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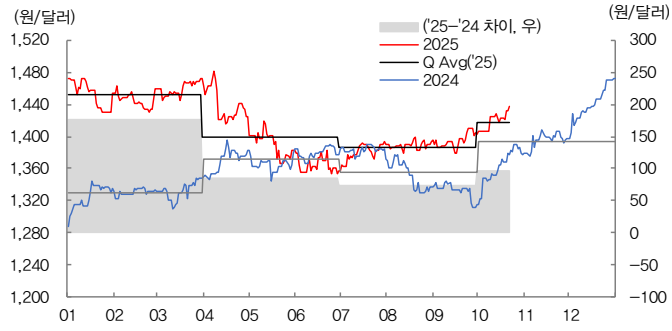
금주 시장 동향

주요 기사	핵심 동향
[해상운송] (25.10.21) 미국 반대한 선박 탄소세 1 년 연기,해운업계는 일단 안도 https://tinyurl.com/229yo7mm	▪ 트럼프의 강한 반대로 20일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탄소세 표결이 1년 연기. 연기된 조치는 5,000톤 이상 선박의 연료유가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 미달 시 27년부터 톤수당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 조선업 강한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주 기대로 찬성했으나 사우디는 석유 수요 감소 우려로 반대. 트럼프 행정부도 강하게 반발하며 찬성국에 관세부과, 비자제한, 미국 입항금지 등 보복 예고한 결과 1년 연기 ▪ 국내 해운사 예상 부담금이 연간 최소 1조~4.8조에 달했던만큼 연기에 안도하는 분위기(해운 95개사 기준 KMI 추산). 국내 해운 친환경 선박비율이 5.9%에 불과해 도입, 개조에 막대한 비용 예상됐던 점도 부담요인. 기후위기를 사기극으로 주장하는 트럼프 임기 중엔 탄소세가 통과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해 당분간 부담 완화
[항공운송] (25.10.23) 유가, 환율에 동남아 포비아까지… 우울한 항공주 https://tinyurl.com/2yep69yv	▪ 연일 신고가 달성 중인 코스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부진한 모습. 23일 KRX항공지수는 1,172로 9월부터 5% 이상 하락해 동기간 22% 상승한 코스피와 대조적. 고환율 고유가로 비용부담 확대되나 수요는 위축됐기 때문 ▪ 고환율 고유가는 항공사의 대표적인 비용 요인. 전체 매출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를 달러로 매입하고 항공기 리스료도 외화로 지출하기 때문.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수요 회복 기대됐으나 미국의 이민 규제 강화로 미주노선 이용률 하락했으며 캄보디아 사태가 동남아 기피로 번지며 여객 수요 위축 우려 확대. 추석 연휴가 9월에서 10월로 밀린 점도 국내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 쇼크 가능성 키워 항공주 주가에 선반영
[육상운송] (25.10.19) 1 인당 택배이용 연 115 회 대형매장 매출은 '뚝' https://tinyurl.com/22vyuqr2	▪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를 연간 115.1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 국민 1명당 평균적으로 3일에 한번씩 택배를 이용했다는 의미로 20년 65.1회에서 84.5% 늘어난 수치. 작년 국내 택배 물동량은 59.5억건으로 20년 33.7억건에서 76.5% 증가. 해마다 늘어난 물동량은 21년 36.2억건, 22년 42.1억건, 23년 51.5억건을 기록 ▪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방문구매에서 온라인 택배주문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한 결과.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형매장 3사는 연간 총매출이 20년 25조원에서 21년 21조로 대폭 감소.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고도화되는 온라인 택배가 식료품과 생필품 영역까지 흡수하는 모습

자료: 각 신문사 취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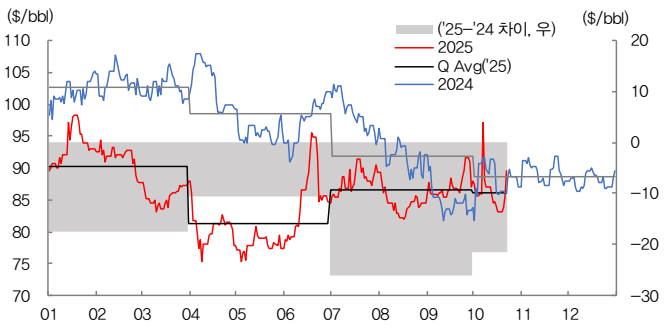
금주 주요 차트 MAP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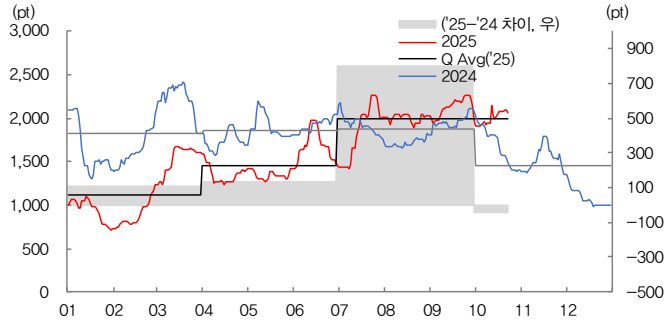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et Fuel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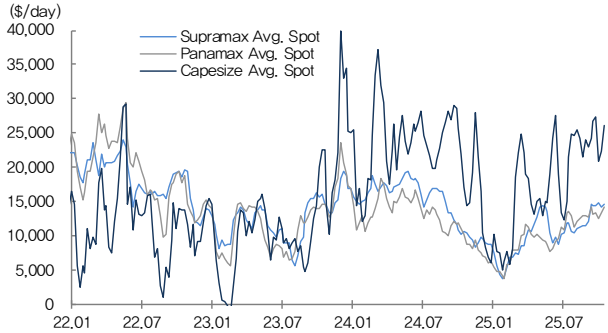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ltic Dry Index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ulkcarrier Spot Earnings 추이



자료: Clark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양지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